

배포 일시	2023. 1. 20.(금)		
담당 부서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책임자	과 장 안세희 (044-201-3526)
		담당자	사무관 간인숙 (044-201-3529)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합니다.		

## 원희룡 장관 단장으로 원팀코리아, 중동 3개국 수주 활동

- [사우디] 주택 및 스마트시티 협력 논의 등
- [이라크] 제9차 한-이 공동위 논의, 신도시 건설현장 방문
- [카타르] 도하 메트로 미수금 문제 등 기업 애로 해소 총력

□ 윤석열 정부는 올해 신년사에서 ‘해외건설 500억불 수주’ 목표를 밝히며, 특히 고유가로 대규모 인프라 시장이 열리는 중동지역에서 전방위적 수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24일(화)부터 1월 26일(목)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카타르 중동 지역 3개 국가를 대상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 인프라 협력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 이번 방문은 고유가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는 중동 지역에서의 우리기업 수주활동을 본격 지원하고, 그간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지역 주요 인사와의 축적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협력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면서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 단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① 사우디아라비아

□ 1.24(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부펀드(PIF) 총재, 도시농촌주택부 장관을 만나, 양국간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건설기업들의 사우디 핵심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사우디 수주지원단 파견(단장 : 국토부장관), 사우디 왕세자 방한 및 한-사우디 주택협력포럼 개최 등을 통해 이어져 온 양국의 고위급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 단계 발전된 협력관계를 이끌어 낸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 야시르 알루마이얀(Yasir bin Othman Al Rumayyan) PIF 총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는 PIF가 발주하는 사우디 내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기업 참여 등을 논의하고, 모듈러 주택 관련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원 장관과 PIF 총재는 지난해 사우디 수주지원단 파견 시 처음 만나 서로의 협력의지를 확인한 바 있으며, 사우디 왕세자 방한 시에는 삼성물산과 PIF 간의 모듈러주택 협력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번 만남에서는 삼성물산과 PIF는 모듈러 주택협력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한국의 모듈러 주택이 네옴 등 주요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마제드 알호가일(Majed bin Abdullah bin Hamad Al Hogail) 도시농촌주택부 장관과는 주택 및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공동실무회의 개최, 박람회 개최, 연수과정 운영 등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원희룡 장관은 도시농촌주택부 장관의 초청으로 사우디 지방투자포럼에서 특별 기조연사로도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 ② 이라크

- 1.25(수) 이라크에서는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한 고위급 협의, 우리기업 수주지원 및 건설현장 방문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 아티르 알그레이리(Atheer Dawoud Salman Al Ghairy) 무역부 장관과는 이라크 정세, 팬데믹 등으로 연기되었던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

개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국토부장관과 이라크 무역부 장관이 수석대표인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는 '84년~'17년까지 8차례 개최되었으나, '17년 이후 이라크 정세 등으로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5년만에 공동위원회 재개 논의를 통해 고위급 협력 채널을 재가동하고, 이라크 재건사업과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라자크 알사다위(Razaq Mehebis Ejaimi Al Sadawi) 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만나 IS와의 전쟁으로 파괴된 도로 등 교통망 재건사업 협력 및 우리기업 수주지원을 위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특히, 바그다드 경전철(BET) 사업은 최근 이라크 신정부 구성 후 사업 추진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고위급 수주활동은 우리기업 진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적기로써의 의미가 있다.

□ 또한 원 장관은 한화건설이 최근 사업을 재개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건설 파견인력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 ③ 카타르

□ 1.26(목) 카타르에서는 자치행정부 등 고위급 인사를 면담하여,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 특히, 우리기업이 건설에 참여한 도하 메트로 사업의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카타르는 우리나라 해외건설 누적 수주 8위의 중점 협력 국가로서, 카타르 'Vision 2030' 및 2022년 월드컵 개최 등에 따라 도로, 공항, 원유·가스 등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 지속적인 발주가 예상되고 있어 이번 방문의 성과가 주목된다.

- 원 장관은 “실질적인 수주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우리기업의 우수한 역량 홍보를 통해 협력관계를 돈독히 이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앞으로도 “우리기업 해외건설 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원팀코리아를 파견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